『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4
pp.061-086. ISSN : 1229-9618

중국어 동사의 핵심 의미 자질에 관한 고찰*
– ‘熬’와 ‘炒’를 예로

김시현**

【목 차】

1. 들어가며
2. 핵심 의미 자질에 관하여
3. ‘熬’와 ‘炒’의 핵심 의미 자질
   1) 의미 변화의 단계별 핵심 의미 자질
   2) 構詞를 통한 핵심 의미 자질
   3) 의미연쇄 구조 및 핵심 의미 자질
4. 나오며

【초록】

본고는 다의어에서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핵심 의미 작용을 하는 성분에 주목하여 동사 ‘熬’와 ‘炒’를 대상으로 사전과 코퍼스를 활용하여 이들의 핵심 의미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고, 그 역할과 방향성을 탐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構詞를 통해 ‘熬’와 ‘炒’의 복합어에서 보이는 핵심성분을 추출하여 핵심 의미 자질을 다시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熬’의 핵심 의미 자질은 동작의 시간과 관련된 [+장시간]이었고, 내포의미자질로 [+인내]자질이 ‘熬’의 의미 확장에서 두드러졌다. ‘炒’의 핵심 의미 자질은 동작의 횟수와 관련된 [+빈번]이었고, 내포의미자질로 [+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 S1A6A3A02043693) 아울러 본고는 대한중국학회 창립 40주년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김시현,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jinshixuan2016@126.com)

작]자질이 '炒'의 확장 의미에서 두드러졌다.

【키워드】 熬, 炒, 다의어, 의미 자질, 핵심 의미 자질

1. 들어가며

한어 어휘사(漢語詞彙史) 연구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형식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변화이다. 특히 의미 변화 연구가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어휘의 의미 변천 사례를 조사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1] 이러한 의미 변화 연구 중에서 다의어(polysemy)를 대상으로 의미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더욱이 중요하다.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의미 확장으로 인해 다수의 의미 항목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의미의 다의성으로 인해 다수의 의미소가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일수록 다의성이 높은 어휘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熬'와 '炒'의 예를 보자.

(1)a. 這天父親熬了牛骨湯. 요 며칠 아버지께서 곰탕을 끓이셨다.

b. 眼熬紅了, 細麻麻一網血絲. 눈을 혹사시켜 시뻘겋게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생겼다.

c. 像您一樣, 用電腦, 寫文章, 開晚班, 熬心血, 工作比他們累一百倍. 당신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고, 글을 쓰고, 야간 근무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면 그들보다 백배는 힘들다.

(2)a. 白天跟著村姑們採茶, 夜裡到村子, 看男人炒茶, 空閒的時光, 就拿來讀書. 낮에는 마을 아녀자들 따라 찻잎을 따고, 밤에는 마을로 돌아와, 남정네들이 차 볶는 것을 보고, 한가할 때는 책을 읽는다.

b. 把一個歷史名人炒熱, 就會有利於一個地方的投資, 還有文化和旅遊收益. 역사적 유명인을 홍보하는 것은 지역의 투자 및 문화와 관광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 他請教馬建, 說馬建你是做生意的, 炒股炒得又好, 如今股市觸底了, 觸底就要反彈, 你給我分析分析, 讓我也買. 그는 馬建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말하길, 당신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 투자도 잘 하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는데, 바닥을 치면 반등할 거니까 나도 사게 분석 좀 해줘 봐요.

---

1) 董秀芳, 「語義演變的規律性及語義演變中保留義素的選擇」, 『漢語使學報』, 2005年第1期, 浙江大學漢語史研究中心, 2005.05, p.292.

위의 (1a)와 (2a)에서는 '熬'와 '炒'가 각각 '곰탕(牛骨湯)', '차(茶)' 등의 음식이나 식재료와 결합하여 '끓이다', '볶다'의 기본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 (1b), (1c), (2b), (2c)는 모두 '熬'와 '炒'의 확장 의미로 쓰였다. (1b), (1c)에서는 '熬'가 '눈(眼)', '심혈(心血)'과 결합하고, (2b), (2c)에서는 '炒'가 '역사적 유명인(歷史名人)', '주식(股)'과 결합하였다. '熬'와 '炒'가 위의 예시처럼 비음식 또는 비식재료와 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중들에게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이미 의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熬'와 '炒'의 의미가 각각 '熬牛骨湯(곰탕을 끓이다)→熬眼(눈을 혹사시키다)→熬心血(심혈을 기울이다)', '炒茶(차를 볶다)→炒人(사람을 홍보하다)→炒股(주식투자를 하다)'의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명사 성분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명사 성분과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었다. 이처럼 비논리적인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던 '熬'와 '炒'의 의미적 변화는 어떤 연유에서일까? 조리의를 나타내는 구체적 의미에서 비조리의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로의 변화에 보이지 않는 기준과 제약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의어란 의미 항목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어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일컫기 때문에,[2] 이들 의미 사이에 반드시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의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핵심 의미 작용을 하는 성분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 의미 성분을 핵심 의미 자질 또는 핵심 의미 성분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 자질을 먼저 분석한 후 그중에서 핵심 의미를 갖는 자질을 추출한다. 이에 이 글은 핵심 의미 자질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핵심 의미 자질을 추출하는 방법과 과정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의어의 핵심 의미 자질에 관한 연구는 단어 의미의 근간과 핵심을 찾아 단어 내부 의미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체계를 개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조리동사 중에서도 의미 확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熬'와 '炒'를 연구 대상으로[3] 정하고 사전과 코퍼스를 활용하여[4] 이

---

2) 葛本仪,『现代汉语词汇学(第3版)』, 商务印书馆, 2014, p.131.

3) 김시현,「漢韓烹飪動詞語意比較研究」, 北京師範大學, 박사논문, 2022, p.131.에 따르면, 조리동사 중 코퍼스(중국어 BCC)에서 의미확장 관련하여 가장 많은 유효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동사는 熬(기본 의미: 198, 확장 의미: 420), 炒(기본 의미: 534, 확장 의미: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編,『現代漢語頻率詞典』, 北國語言學院出版社, 1986, pp.5-42.에서도 熬의 사용빈도(頻率)가 0.00160, 사용도(使用度)는 7이었으며, 炒의 사용빈도가 0.00084, 사용도가 7로 두 단어 모두 사용빈도와 사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의성을 가진 실의동사(實義動詞)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고 사용빈도가 높은 조리동사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중에서 의미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동사가 熬와 炒였다. 또한 熬와 炒는

들의 본의와 기본 의미에서부터 확장 의미까지 어떠한 의미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다의어의 의미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의미 발전 단계에서 이들 간에 공통된 의미를 공유하면서 연쇄적으로 의미를 연결하는 핵심 의미 자질을 찾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미적 관계와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構詞를 통해 핵심 의미 자질을 다시 확인해 보일 것이다.

2. 핵심 의미 자질에 관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소 간에는 여러 의미 성분(semantic component), 즉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5]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변별적 자질이 존재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야콥슨(R. Jakobson)은 '기본 의미'라고 부르는 것이 다의에서의 '중심 의미'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총체적 의미'라고 명명하기를 제의했다.[6] 기본 의미는 "어떤 언어형식의 가장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의미이자 실제 맥락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현되는 의미"[7]로, 사전의미에서 보통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 항목이며, 그만큼 의미 항목 중 단어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기본 의미와 중심 의미는 다른 개념이며, 중심 의미에서 나타나는 의미 자질과 상관되는 개념이 바로 핵심 의미 자질이다.

핵심 의미 자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미 연구가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다의어에서 각 의미 항목 간의 의미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의미 성분, 즉 자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곧 본의와 기본 의미의 의미 자질과 의미 확장을 통해 발현되는 의미 자질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8] 그중에서도 핵심 의미 자질에 관

3장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본의가 거의 비슷해 고대에는 유사어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파생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동사로 발전했기 때문에 熬와 炒를 함께 논하는 것이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본고에서 참고한 사전자료는 『漢語大詞典』과 『現代漢語詞典』이고, 코퍼스자료는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이다.

5) M. Lynne Murphy, 임지룡, 윤희수 번역, 『의미관계와 어휘사전』, 박이정, 2008, p.153.에서는 의미 본원소(semantic primitive)라고도 했다.

6) 재인용.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2008, p.99.

7) 박재연,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09, p.116.

8) 김시현,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통한 한중 조리동사의 대응관계 - 삶다(煮)류 의미장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79집, 대한중국학회, 2022.06, p.20. 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어휘장(또는 의미장) 연구를 기본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의미 자질을 분석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중 조리동

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도 핵심 의미 자질을 가리키는 명칭이 연구자마다 이견을 보이는 문제점도[9] 있어, 명칭과 개념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핵심 의미 자질' 관련 명칭

선행연구	핵심 의미 자질 관련 명칭
張聯榮(1995), 王雲路, 王誠(2014)	核心義
장광군(1998), 리치국(2011)	핵심의미소
馮凌宇(2003)	核心義素
董秀芳(2005)	保留義素(preserved semantic parts)
王東海(2006)	核義素
朱彥(2006)	核心成分
劉厚偉(2009), 王華, 商怡(2016), 楊曉霞(2020)	核心語意特徵

<표1>의 선행연구 중에서, 張聯榮(1995)에서는 다의어의 핵심 의미를 '核心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각 의미 항목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여 의미의 핵심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核心義'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로는 王雲路를 들 수 있는데, 王雲路, 王誠(2014:16)에서는 한어 의미 발전을 통제하는 내재적 요소가 '核心義'라고 하였다. '核心義'는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자질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핵심 의미 자질과의 개념을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核心義'는 핵심 의미 자질을 추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리치국(2011)은 의미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종류를 나눠서 논술하였는데, 이러한 세밀한 의미소의 분류는 본 연구에서 핵심 의미 자질 개념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리치국(2011:23-24)에서는 의미소를 재래의미소와 외래의미소로 나누고, 재래의미소는 다시 실재의미소와 잠재의미소로 나누었다. 실재의미소는 핵심의미소와 비핵심의미소로 나뉘고, 여기서의 비핵심의미소와 잠재의미소를 합쳐 주변의미소라고 명명하였다.[10] '핵심의미소'라는 개념을 썼으나, 논의과정에서의 개념 풀이를 살펴보면, 의미 자질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리치국(2011)의 선행연구인 장광군(1998:10-11)에서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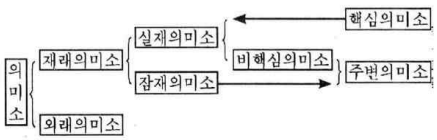
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의미 확장 연구 중에, 기본 의미의 의미 자질과 의미 확장을 통해 발현되는 의미 자질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까지도 현저히 부족하다.

9) 연구자에 따라 용어 사용이 다양한데, 박재연,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09, p.116.에서는 '핵심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핵심 기능은 "추상적인 의미로서 기본 의미를 비롯한 모든 맥락 기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재연(2022)에서 언급된 '핵심 기능'은 의미 종류에 대한 단순한 언급에 그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해된 의미소 가운데 비대표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였으며,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핵심의미소와 주변의미소로 나뉜다고 하였다.[11] 이 말은 의미 자질 중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의미 자질과 비대표적인 의미 자질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王華, 商怡(2016)에서는 동사 '迎'과 '接'의 본의 분석과 동원사(同源詞)를 찾아 이들의 핵심 의미 자질을 추출한 후, 핵심 의미 자질이 의미 확장에서 관여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사어인 '迎'과 '接'가 언어 사용자의 선택과 의미발전과정 중 경쟁으로 인해 의미소가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12]

정리해 보자면, 다의어는 각 의미 항목의 의미 자질의 집합에서 공통의미와 개별의미를 갖게 된다. 공통의미와 개별의미 또한 다수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공통의미에서의 핵심적인 자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의미 자질이다. 따라서 공통의미에서의 자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질로 의미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질이 핵심 의미 자질로 볼 수 있다. 즉, 핵심 의미 자질(核心語意特徵)[13]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단어(어휘)가 가진 다수의 의미소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 성분 즉, 의미 자질을 일컫는다. 이러한 핵심 의미 자질은 여러 의미 자질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미적 작용을 하면서 관련 어휘의 확장에 참여한다. 어휘의 생태적인 추이 과정에서 보면, 어휘 의미의 파생이란 의미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은 대체로 유사 지각이나

---

10) 원문: 

리치국, 「신어조성에서의 핵심의미소탈락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中國朝鮮語文)』, 제3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1.에서는 '강시경제'란 신어가 핵심의미소가 탈락된 예라고 주장하였는데, 본고에서의 입장은 핵심 의미 자질은 탈락될 수 없다고 본다.

11) 박재연,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09, p.106.에서 의미의 종류 설정 문제에서 개념과 용어 난립이 생산적 토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광군, 「의미부변종과 단어의 의미변화」, 『중국조선어문』, 제94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8, p.10-13.에서는 의미소, 핵심의미소, 주변의미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의미소의 개념이 오용되었다고 본다. 위 논문의 의미소는 의미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자질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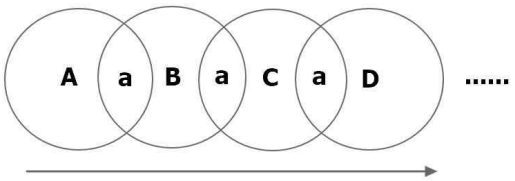
12) '接'가 '迎2'의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대신하지만, '迎1'의 '사람이 오고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迎2'와 '接'의 핵심 의미 자질인 [접점]이 공통적 의미 자질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13) 이영래, 「중국어 어휘의 의미 변화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에서는 '중심의미소'라고 불렀으며,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의미 자질 중에서 핵심적인, 중심적인 의미 기능을 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핵심 의미 자질(핵심 의미 성분)'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인접 지각에 의한 연상 심리의 작용을 받는다.[14] 이러한 유사(은유, metaphor), 인접(환유, metonymy) 등의 연상을 통해 의미가 파생될 때, 핵심 의미 자질이 공유되면서 중요한 의미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의 관계에 대한 언어의 의미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보편적으로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을 통해 설명된다. 원형 이론에 따르면 한 범주의 내부 구성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중심적 원소인 원형과 그로부터 확장된 주변적인 원소가 '방사상 구조(radial structure)'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15] 이는 핵심 의미 자질을 뒷받침하는데 참고할만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수정하여 응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보인다. 원형 이론에서는 원의로부터 파생된 의미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계 건너는 경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고리 이외에 다른 의미끼리의 유연성은 보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16] 이점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다의어는 의미 항목 간에 '의미 핵'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술하였듯이,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의미적 핵심 성분이 증명된 바이기도 하다. 이 '의미 핵'의 개념을 핵심 의미 자질로 보고, 원형 이론의 '의미연쇄 구조'를 수정하여 의미 파생 과정에서의 의미 항목 간의 관계에서 핵심 의미 자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의미연쇄 구조 및 핵심 의미 자질



<그림1>[17]에서 보듯이, 원형의미 A로부터 의미가 확장된 B, C, D는 수평적으로 확장된 의미 연쇄를 의미하고, 이들은 모두 다의어의 의미관계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인 다양한 의미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 B, C, D 이들 사이에 공통

14)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2008, p.92.
15)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9, pp.107-108, 302.
16)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2008, pp.96-97. 임지룡, 「어휘의미론과인지언어학」, 『한국어학』, 제21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12, p.18.
17) <그림1>은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9, pp.100-101, pp.109-110.의 '의미연쇄 모형'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의미연쇄 모형에서의 주장은 어떤 핵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연쇄를 통해 확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의미연쇄를 통해 확장될 때 반드시 핵심 의미 자질을 통해 의미가 발전된다고 보고 있어 위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으로 나타나는 a는 핵심 의미 자질을 뜻한다. 이렇듯 다의어가 원형 A를 중심으로 인접항 간의 의미 연쇄에 의해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1958:66-67)에서는 '가족 닮음' 원리[18]로 설명하기도 했고, 하이네(Heine, 1992)에서는 문법화의 연쇄를 설명하면서 가족 닮음 범주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연속선이라고 설명하였다[19]. 즉, 가족 간에 생김새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듯이, 의미가 확장될 때도 제멋대로 전혀 다른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본연의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의미가 확장,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 변화는 상관성이 전혀 없는 독립적인 발전이 아닌 연속체이며, 이 연속체의 절점은 변화의 단계 속에 공통 속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다의적 용법 간에 '의미 연쇄(meaning chain)'의 원리를 적용하여 원형 의미와의 관련성을 설명해 볼 수 있다.[20]

본고에서는 여러 의미 자질 가운데 이 핵심 의미 자질이 어휘의 파생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휘의미론에서 의미특징을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분석법의 의미 자질 분석을 통해 다의어의 의미 전의 과정에서 핵심 의미 자질을 추출하고, 핵심 의미 자질의 역할과 의미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3. '熬'와 '炒'의 핵심 의미 자질

다의어에서 '기본 의미 항목'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 항목'의 '확장 의미'는 순차적으로 의미가 생겨난 통시적 의미 확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21] 보통 객관적 사물의 추상화를 통해 본의와 기본 의미에서부터 파생되어 확장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단어 의미의 형성과 발전 과정은 보편적으로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개별에서 일반인 모습을 띤다.[22] 핵심 의미 자질은 보통 한 단계의 의미 형성에서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확장 의미까지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의어의 핵심 의미 자질을 찾기 위해서는 본의와 기본 의미 그리고 확장 의미까지 더 나아가

18) 재인용.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p.110.
19) 채춘옥, 「중국어 '落'류 동사의 의미지도 연구 - 이동동사 '掉', '落'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2,03, p.104. 재인용.
20) 채춘옥, 「중국어 '落'류 동사의 의미지도 연구 - 이동동사 '掉', '落'을 중심으로」, p.104.
21) 박재연,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09, p.111.
22) 張聯榮 「談詞的核心義」, 『語文研究』, 第3期, 1995, p.33.

構詞 상황까지도 여러 경우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미 자질을 명시할 때, 언어형식이 지시하는 의미특징은 몇 가지 의미 성분 또는 의미 자질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의미 성분 중에는 설명에 꼭 필요한 성분도 있지만, 굳이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 의미 성분도 있다는 것이다.[23] 이는 핵심 의미 자질이 의미 성분 중에는 설명에 꼭 필요한 성분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미 자질 기술시, 의미 기술의 간결성을 위하여 의미 성분 중에 꼭 필요한 성분 위주로 기술하되, 필요시 내포된 의미 자질도 기술한다.

1) 의미 변화의 단계별 핵심 의미 자질

의미 자질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질이 보이지 않는 자질보다 그 의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파생된 의미에서도 쉽게 계승되며, 이는 동사의 의미 변천에서도 적용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동작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24] 동작 행위인 '이동'은 이동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로를 따라 공간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25], 이는 곧 동작 관련 '움직임'을 말한다. 그러나, 동사 '熬'와 '炒'는 일반동사와는 달리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식재료에도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熬'와 '炒'의 '이동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식재료도 전경(figure)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사 '熬'와 '炒'에서의 '이동'은 사람이 음식 또는 식재료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과 관련된 여러 조건과 제한에 따라 그 상태가 바뀌는 것(결과물 생성)을 말한다.

(1) 본의를 통한 핵심 의미 자질

'熬(볶을 오)'는 설문해자에서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說文·火部』: 熬, 乾煎也. 从火敖聲. '물기 없이 볶다(乾煎)'라는 뜻이다. 화(火)가 의미부이고 오(敖)가 소리부이다.[26]

---

23) 신현숙·김영란, 『의미와 의미분석』, 푸른사상, 2012, p.119. 이때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인지하는 의미 성분, 그것이 바로 잉여 성분(redundant component) 또는 잉여 자질(redundant feature)이 된다. 잉여 자질은 의미 기술에 있어 간결성을 부여한다.

24) 董秀芳, 「語義演變的規律性及語義演變中保留義素的選擇」, 『漢語使學報』, 제00집, 浙江大學漢語史研究中心, 2005.05, p.288.

25) Talmy의 '이동 사건(move-event)'참고.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pp.280-281.

26) 허신 저, 하영삼 역주, 『하영삼 교수의 완역 설문해자 3』, 도서출판3, 2013, p.2832.

‘熬’에 대한 해석은 ‘煎(달일 전)’을 통해 설명되었다. 따라서 ‘煎’의 설문해자의 해석을 보면 『說文·火部』: “煎, 熬也. 从火, 前聲.”로, “‘불에 볶다(熬)’라는 뜻이다. 화(火)가 의미부이고 전(前)이 소리부이다.”라고 했다. ‘熬’와 ‘煎’이 마치 동의처럼 보이나, ‘熬’에서는 ‘煎’자 앞에 ‘乾’을 넣어 ‘물기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熬’는 ‘煎’보다 그 의미가 훨씬 구체적인데,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바짝 볶는 조리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熬’의 본의는 ‘(약한 불로 천천히 쬐어) 물기(수분)가 없게 볶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熬’의 의미 자질은 [+장시간][+건조][+볶다][27]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볶으려면 일반적으로 볶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며, 정성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질은 바로 [+장시간]이고, 이 [+장시간] 자질을 통해 드러나는 내포의미자질이 [+인내]라고 볼 수 있다. 내포의미자질은 단어가 반영하는 사물의 비본질적 특징으로, 사물의 본래 의미가 아닌, 사회심리가 부여한 특징을 포괄한다.[28] 내포의미자질은 보통 드러나지 않다가 한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 관련 자질이 강조되면서 드러난다.

‘炒(볶을 초)’는 설문해자에 미수록된 글자이다. 『廣韻·巧韻』에 따르면 ‘鬻’가 ‘炒’와 같다고 하였으므로[29], 동자(同字)인 ‘鬻(볶을 초)’의 해석을 살펴보면 ‘炒’의 본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說文·鬲部』: 鬻, 熬也. 从鬲, 芻聲. ‘볶다’라는 뜻이다. 력(鬲)이 의미부이고 추(芻)가 소리부이다.[30]

‘鬻’ 또한 ‘熬’의 ‘볶다’라는 의미로, 앞서 살펴본 ‘煎’과도 동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설문해자의 해석을 통해 살펴보면, 본래 ‘炒’와 ‘熬’는 유사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기 없이 바짝 볶는 ‘熬’와 달리 ‘炒’는 일반적인 볶는 것을 의미한다. 볶는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炒’의 의미 자질은 바로 [-장시간][+볶다]로 볼 수 있다.

본의만 보았을 때는 어떤 의미 자질이 ‘熬’와 ‘炒’의 핵심 의미 자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熬’의 [+장시간]자질에 내포된 [+인내]자질이 본의에서는 직접적으로

---

27) 본의에서는 ‘볶다’의 의미 자질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의미 항목이 없으므로, [볶다]로 표기한 후, 자세한 의미 자질은 현대 중국어 사전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28) 장사오위 저, 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휘의미론(古漢語詞彙綱要)』, 차이나하우스, 2012. p,97.
29) 『廣韻·巧韻』: “鬻”, 同“炒”.
30) 허신 저, 하영삼 역주, 『하영삼 교수의 완역 설문해자 1』, 도서출판3, 2013, p.805.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 확장에서 강조될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어서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까지 연계하여 의미 자질을 분석하도록 한다.

(2) 기본 의미, 확장 의미를 통한 핵심 의미 자질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는 의미 항목에 대한 구별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를 참고할 수 있다. 사전 기술에서 ❶의미는 보통 기본 의미이며, ❷이하의 의미는 확장 의미에 해당한다.[31] 당연히 ❶의 의미가 먼저 생긴 의미이고, ❷이하의 의미가 나중에 생긴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의미 성분 즉, 자질 설정을 위해 『漢語大詞典(第7卷)』와 『現代漢語詞典(第7版)』의 사전 뜻풀이에서 나타나는 의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2>를 통해 '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표2> '熬'의 사전적 의미

	『漢語大詞典』[32]	『現代漢語詞典』[33]	의미 항목에 따른 구분
熬āo	一種烹飪方法. 將蔬菜等放在水裡久煮使爛熟	烹調方法. 把蔬菜等放在水裡煮	기본 의미
熬áo	❶乾煎；乾炒		본의
	❸乾焦		
	❹文火久煮	❶把糧食等放在水裡, 煮成糊狀 ❷為了提取有效成分或去除所含水分、雜質, 把東西放在容器裡久煮	기본 의미
	❺忍耐；勉力支持	❸忍受(疼痛或艱苦的生活等)	확장 의미
	❻方言. 累		
	❼猶消磨、消耗		
	❽訓練, 調教		

<표2>에서 보듯이, 熬āo 뜻풀이는 熬áo의 『漢語大詞典』의 의미 항목❹와 『現代漢語詞典』의 의미 항목❶과 ❷에 포함되기 때문에 熬áo만을 분석하도록 한다. 사전적 정의를 통해 현대 중국어에서 '熬áo'의 '文火久煮' 의미가 기본 의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의에서 기본 의미로의 의미 변화인데, 조리활동 영역인

31) 박재연,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09, pp.110-111.
32) 熬áo의 명사용법인 ❷指乾炒的穀物, 의성어 ❾通"嗷". 參見"熬熬" 의미 항목 제외.
33) 熬āo의 명사용법인 ❹(Áo)姓 의미 항목 제외.

‘볶다’가 ‘끓이다’로 그 의미에 변화를 보인다. 사전에 기술된 의미 항목에 따라 熬áo (이후 熬로 표기) 기본 의미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❹文火久煮❶把穀物等放在水裡煮成糊狀

→ [+뭉근한 불][+장시간][+끓이다][+재료: 곡물 등][+다량의 물][+특정상태: 풀, 죽]

❹文火久煮❷為了提取有效成分或去除所含水分、雜質, 把東西放在容器裡久煮

→ [+뭉근한 불][+장시간][+끓이다][+진한 상태][+재료][+도구]

이어서, ‘熬’ 확장 의미의 의미 항목에 따라 의미 자질을 분석한다. 이때 ‘熬’의 의미 항목에 제시된 어휘를 『現代漢語詞典』을 통해 그 의미 항목을 검색하여 의미 자질을 분석한다.

【忍耐】把痛苦的感覺或某種情緒抑制住不使表現出來

【支持】❶勉強維持；支撐 ❷給以鼓勵或贊助

【忍受】把痛苦、困難、不幸的遭遇等勉強承受下來

→ [+고통(고난)][+인내][+장시간]

【累】使疲勞；使勞累, 操勞

→ [+고통(고난)][+인내][+소모(소실)][+장시간]

【消磨】❶使意志、精力等逐漸消失 ❷度過(時間, 多指虛度)

【消耗】❶(精神、力量、東西等)因使用或受損失而漸漸減少 ❷使消耗

→ [+재료(대상): 의지, 힘, 시간, 정신, 물건 등][+장시간][+소모(소실)][+인내]

【訓練】有計劃有步驟地使具有某種特長或技能

【調教】❶調理教導(多指兒童)❷照料訓練(牲畜等)

→ [+장시간][+훈련][+인내]

‘熬’의 확장 의미에서는 동작의 시간과 관련된 [+장시간]자질뿐만 아니라 [+인내]자질도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시간]자질은 ‘熬’의 본의에서부터 두드러졌지만, [+인내]자질은 [+장시간]자질을 통해 드러나는 내포의미자질이다. 그런데 확장 의미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숨어있던 [+인내]자질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확장 의미에서 내포의미자질이 직접적으로 강조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熬’의 의미 발전에 있어서 [+장시간]자질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의미 파생에 있어 의미를 제한하는 제약조건도 되는 것이다. [+장시간]자질에 내포되어 있던 내포의미자질 [+인내]가 확장 의미에서 두드러지면서 ‘熬’는 물건, 사람 등의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힘, 의지, 정력, 시간 등의 추상적인 것까지 사용 가능하며, ‘견디다, 힘들게 하다, 소모하다, 훈련 시키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

다음으로 <표3>를 통해 ‘炒’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표3> '炒'의 사전적 의미

	『漢語大詞典』	『現代漢語詞典』	의미 항목에 따른 구분
炒	❶烹調方法之一。把食物放在鍋裏加熱並隨時翻攪使熟。	❶烹調方法, 把食物放在鍋裏加熱並隨時翻動使熟, 炒菜時要先放些油	기본 의미
	❷用同"吵1"。吵鬧。[34]		확장 의미
		❷炒作①[35]	
		❸炒作②[36]	
		❹指解僱	

<표3>에서 보듯이, '炒'의 기본 의미인 '조리의'는 『漢語大詞典』와 『現代漢語詞典』의 뜻풀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상세한 『現代漢語詞典』의 의미 항목으로 의미 자질을 분석한다.

把食物放在鍋裏加熱並隨時翻動使熟, 炒菜時要先放些油

→ [+도구(-뚜껑)][+빈번][+뒤집기][+재료][+기름]

위의 의미 항목에 따르면, '炒'는 식재료를 도구에 넣고 수시로 빈번하게 뒤집어 익히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모든 조리활동은 식재료와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재료와 도구는 변별적 자질이 되지 못하고, [+볶다]는 [+빈번]과 [+뒤집기]자질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빈번]과 [+뒤집기]자질은 '炒'의 의미 성분 중에는 설명에 꼭 필요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이하 [+볶다]자질은 [+빈번]과 [+뒤집기]자질로 표기)

이어서, '炒'의 확장 의미의 의미 항목에 따라 의미 자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漢語大詞典』의 의미 항목❷에서 알 수 있듯이, '炒'는 '吵'의 통가자(通假字)로 쓰이며, 독음이 같다. '炒'는 불(火)로 볶아대는 것이고, '吵'는 입(口)으로 떠들어대는 것이다. 이 두 글자는 동음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서로 통한다.

【吵】❶聲音雜亂擾人 ❷爭吵

【吵鬧】❶大聲爭吵 ❷擾亂, 使不安靜 ❸(聲音)雜亂

→ [+소리][+방해][+조작[37]][+빈번]

---

34) 吵1 chǎo ❶爭吵。❷聲音嘈雜擾人。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第7卷) 』, 上海辭書出版社, 2021, p.207.

35) 指頻繁買進賣出, 製造聲勢, 從中牟利。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第7版) 』, 商務印書館, 2016, p.155.

36) 為擴大人或事物的影響而透過媒體反覆做誇大的宣傳。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위의 사전, p.155.

37)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조작(造作)'의 의미항목은 '❶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❷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❸지어서 만듦.'인데, 소리를 계속 만들

볶는 것과 떠드는 것은 모두 크고 작은 소리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炒'가 가차되어 '吵'의 뜻을 나타낸다. 이때 '炒'의 횟수를 나타내는 [+빈번]자질이 '吵'자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炒'를 본의와 기본 의미 그대로 '볶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잘못된 표현이 되지만, '吵'로 바꿔보면 그 의미가 통한다. 다음 예를 보자.[38]

(3) a. 元·喬吉『金錢記·第一折』: 鬧炒炒嫩綠草聒鳴蛙, 輕絲絲淡黃柳帶栖鴉.

시끌벅적 여린 초록 풀에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살랑살랑 옅은 노란 버드나무 가지 위 까마귀 머무네.

b. 『朱子語類·朱子』: 且如出十裡外, 既無家事炒, 又無應接人客, 正好提撕思量道理.

또 십리 밖을 나서면, 집안일의 시끄러움(소란)이 없고, 손님을 접대할 필요도 없으니, 마침 도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c. 洪邁『夷堅志·吳昇』: 婆兒子性氣惡, 我留汝必遭炒鬧.

시어머니와 아들의 성격이 괴팍하니, 내가 너를 머무르게 하면 반드시 말다툼과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3a)와 (3c)에서는 '炒'와 함께 '鬧'함께 출현함으로써 '시끄럽다'라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3b)에서는 '炒'와 '吵'의 의미적 공통점을 모른다면 의미 해석에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炒'의 확장 의미로 쓰인 나머지 의미 항목을 통해 그 의미 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炒作】❶指頻繁買進賣出, 製造聲勢, 從中牟利

→ [+빈번][+매매][+조작][+분위기][+이익]

【炒作】❷為擴大人或事物的影響而透過媒體反覆做誇大的宣傳

→ [+조작][+영향력][+빈번][+선전]

【解僱】停止僱用。

→ [+정지][+매매][+부리다[39]]

'炒'의 확장 의미에서도 동작의 횟수와 관련된 [+빈번]자질이 두드러진다. '炒'의 기본 의미에서 갖는 [+빈번]자질은 확장 의미에서도 계승된다. '炒'의 [+빈번]자질은

어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작]자질로 표기한다.

38) (5a)의 출처는 國語辭典 https://www.zdic.net/hans/%E7%82%92 [2023.10.10.], (5b)와 (5c)의 출처는 賈廷柱, 『常用古今字通假字典』, 遼寧人民出版社, 1988, pp.23-24.

39)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리다'의 의미항목 중에서 '기계나 기구 따위를 마음대로 조종하다.'를 통해 조종과 관련된 [+조작]자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炒'의 의미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炒'는 '사람' 등의 명사와 결합해 빈번하게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주식, 부동산' 등의 명사와 같이 결합해 빈번하게 '투기하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

'熬'와 '炒'의 확장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동사 '熬'와 '炒'의 앞뒤 성분의 결합관계에서 비논리적 관계가 허용된다는 것이다.[40] 다시 말해서, 의미 확장 후 '熬'의 주어와 목적어가 더 이상 꼭 사람이거나 음식, 식재료일 필요는 없다. 즉, 이때의 의미 확장은 사람들의 인지적 결합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결합(邏輯偏離)일 때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4) a. 張煒『你在高原』: 就這樣俺娘仨一直站著聽, 直聽到那燈油熬幹了…….
이렇게 우리 셋은 등잔 기름이 다 타들어 갈 때까지 서서 들었다.
b. 嚴歌苓『陸犯焉識』: 她的母親心裡熬著巨大的痛苦.
그녀 모친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으로 타들어 가고 있었다.

(5) a. 格非『江南三部曲』: 這件事再在網上炒起來.
이 일은 다시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다.
b. 柳建偉『英雄時代』: 聽天雄說, 他炒過房產什麼的.
天雄한테 듣자하니, 부동산 따위를 투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의 예(4)과 (5)는 식재료인 '재료' 의미 속성이 비식재료인 '대상' 의미속성의 [+대상: 등유], [+대상: 고통], [+대상: 일], [+대상: 부동산] 등의 자질과 결합한 경우이다. 예(4b)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일반적인 논리적 결합 관계를 깨고, 추상적 의미 속성인 '마음'과 결합하였다. 즉, 동사와 결합하는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관계가 비논리적이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 이는 동사의 다의적 용법이 원형적인 용법으로부터 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론 부분에서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熬'의 경우 '牛骨湯(곰탕)→眼(눈)→心血(심혈)', '炒'의 경우 '茶(차)→人(사람)→股(주식)'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장되었고, 적용 범위가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의미적 범주를 형성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熬'와 '炒'의 확장 의미에서는 본의와 기본 의미에서 보이던 전형적인 '조리의' 관련 자질들이 대거 소실되거나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 자질이 생성되어 새로운 의미 항목을 만들어 냈다. 董秀芳(2005:288)에서는 단어 의미 변천에서의 A 의미에서 B 의미로 변할 때, A 의미 성분 중의 일부가 B 의미에 계승되고, 계승되는 의미 자질과 계승되지 못하

40) 束定芳, 『隱喻學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0, p.62. 원문: 引申義主要也是通過主賓語和動詞搭配的邏輯偏離產生的.

고 소멸 또는 생성의 변화를 겪는 의미 자질이 A와 B의 의미발전 관계를 말해준다고 하였다.[41] 이 과정에서 어떤 자질이 변하고, 또 어떤 자질이 유지·계승되는 경향을 보이는가? 이에 관해 "인지 영역에서 가장 현저성이 높은 의미 자질이 새로운 의미에 계승되는데,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두드러지고, 변하지 않는 특징이 쉽게 변하는 특징보다 두드러진다고 한다. 형태, 위치 등의 실재하고 보이는 것 등이 현저성이 높아 의미 변화 과정에서 쉽게 유지되어 계승되는 것이다."[4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熬'의 경우 소실된 자질로는 '조리의'의 [+도구], [+불], [+다량의 물], [+특정상태: 풀, 죽], [+진한 상태] 등의 자질이 있고, 변화된 자질로는 [+건조], [+볶다]자질에서 [+끓이다]자질로의 변화와 식재료를 나타내는 [+재료: 식재료]자질에서 비식재료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재료(대상): 물건, 의지, 힘, 시간, 정신 등]자질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새롭게 생성된 자질은 [+고통(고난)], [+소모(소실)],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계승된 자질로는 [+장시간]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본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인내]자질은 의미항목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지만, [+장시간]자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다. '炒'의 경우 소실된 자질로는 '조리의'의 [+도구(-뚜껑)], [+재료], [+기름], [+뒤집기] 등의 자질이 있고, 변화된 자질로는 식재료를 나타내는 [+재료: 식재료]자질에서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재료(대상): 주식, 외환, 선전, 분위기, 소리, 이익 등]자질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새롭게 생성된 자질은 [+조작], [+매매], [+방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계승된 자질로는 [+빈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炒'의 의미 발전 단계 중 확장 의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자질이 [+조작]인데, 이는 [+빈번]자질의 내포의미자질로 보인다. 움직임의 횟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위해 자꾸 어떤 상태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 색채를 띠도록 표현하면 '조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熬'의 [+장시간]자질이 [+인내]자질을 이끌어내며, '炒'의 [+빈번]자질이 [+조작]자질을 이끌어내어 관련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래 의미에서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의미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계승되는 핵심 의미 자질이 의미 형성과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리동사와 '식재료'류 명사와의 조합은 논리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의미 확장이 일어날 수 없지만, 실제 일부 조합에서 예외적으로 의미

41) 은유(metaphor) 또는 환유(metonymy) 혹은 유사추리(invited inference)를 통해 의미 확장 과정에서 의미 자질이 계승되고 생성된다고 봄.

42) 董秀芳, 「語義演變的規律性及語義演變中保留義素的選擇」, 『漢語使學報』, 2005年第1期, 浙江大學漢語史研究中心, 2005.05, p.288.

확장이 일어난다. 이러한 예는 다행히 생산성이 낮은 편이라 일부 표현에서만 나타나는데 '炒魷魚', '炒冷飯'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炒魷魚', '炒冷飯' 등과 같은 조리동사와 명사의 조합은 모두 '식재료'류 명사와의 조합이다. 그러나 특정 언어 환경에서 요리 동사와 일부 '식재료'류 명사와의 조합도 기본 의미가 아니라 확장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때 이들은 더 이상 조리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炒魷魚'는 단순히 '오징어를 볶다'의 의미가 아닌 '해고하다'로 쓰이고, '炒冷飯'는 단순히 '찬밥을 볶다'의 의미가 아닌 이미 언급한 말이나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의미인 '재탕하다'로 쓰인다. 이러한 현상을 확장 의미에서 나타나는 '과역(跨域) 사용의 어휘 일반화'로 본다.[43] 일반적인 결합 관계에서는 이러한 확장 의미가 발생하지 않지만, 결합상에서 '어휘의 일반화'가 일어날 때, [+빈번]자질을 계승하면서도 은유기제를 통해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빈번]자질은 앞서 사전 뜻풀이를 통해 살펴본 '炒'의 의미 항목 중 '해고하다'에서는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질이다. 물론 [+부리다]자질에 어떤 상황을 조작하고 만드는 [+조작]자질이 내포되어 [+빈번]자질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炒魷魚'의 결합관계에서는 논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 이면의 중국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44] 특히, '炒魷魚'에서 보이는 [+빈번]자질은 문화적 특성에 내포된 자질이다. "의미 확장(引申)은 일종의 규칙적인 어휘의 의미 운동으로, 이 어휘의 의미는 본의로부터 출발하여 의미적 특징에 따라 결정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각 민족의 습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가 생기거나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체계적인 의미 항목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어휘 의미 파생의 기본적인 모습이다."[45] 따라서 의미가 파생될 때 의미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언어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언어 사용자가 언어의 외부 요인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단어의 의미에 대한 연상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별, 언어별, 문화적 배경에 따

---

43) 楚艶芳, 『漢語飲食詞彙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137-138. 또한, 楚艶芳(2017)에서 사용한 '跨域使用的詞義'를 본고에서는 '과역(跨域) 사용의 어휘 일반화'로 해석하였는데, 여기서의 '과역(跨域)'이란 특정 영역에서만 쓰이던 어휘가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본문의 '炒魷魚'가 조리영역을 벗어나 회사, 사업 등의 직장·사회영역으로 그 어휘 의미가 일반화되었다.

44) 해고되었을 때, 자신의 보따리(이부자리 등의 짐)를 둘둘 말아서 떠나는 모습이 오징어를 볶을 때 말아지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비유적 표현으로 '炒魷魚'라고 한다. 이전에 광동지역이나 홍콩지역에서 일하던 외지인들은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생활용품 등의 간단한 짐을 싸고 다녔는데, 해고되면 자신의 보따리 짐만 챙겨서 빠르게 떠났다.

45) 陸宗達·王寧, 「古漢語詞義研究——關於古代書面漢語詞義引申的規律」, 『辭書研究』, 제02집, 中國辭書學會, 1981.05, p.31. 원문: "引申是一種有規律的字義運動。詞義從一點(本義)出發, 沿著它的特點所決定的方向, 按照各民族的習慣, 不斷產生新義或派生新詞, 從而構成有系統的義列, 這就是詞義引申的基本表現."

라 서로 다른 의미 결과를 생성하게 되고 문화적 고유 특성을 갖게 한다.

2) 構詞를 통한 핵심 의미 자질

의미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오고 있다. 이들은 實義義位(content sense)의 구조가 핵심성분(kernel component, 약칭 KC)과 구별성분(distinctive component, 약칭 DC)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實義義位=핵심성분+구별성분(S=KC+DC)'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46] 즉, 의미관계에는 공통분모[47]가 존재하며, 공통분모는 장(場)의 구성요소를 통합하고, 의미 또는 형식을 바꿔주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熬'와 '炒'로 구성된 복합어 어휘장에서 각각 다른 형식의 구성원들의 공통되고 핵심적인 의미 성분과 이외의 변별적 의미 성분인 KC와 DC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시현(2023)에서는『現代漢語詞典』에 수록된 조리동소로 결합된 복합어의 형태적 조합관계의 특성을 형식과 의미관계로 분석하였는데, 본절에서는 김시현(2023)의 '熬'와 '炒'를 참고하여 '實義義位=핵심성분+구별성분(S=KC+DC)'의 공식에 따라 '熬'와 '炒'의 복합어에서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熬'와 '炒'의 복합어에서 공통으로 발현되는 의미 자질이 핵심성분(KC)일 것으로 추정된다. '熬'와 '炒' 두 동사는 다음 복합어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熬'로 구성된 복합어 7개와 '炒'로 구성된 복합어 18개로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각 복합어의 의미 항목에 따라 의미 자질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熬'로 구성된 복합어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자.

熬煎: 比喻折磨 →[+고통(고난)][+장시간][+인내]

熬磨: 痛苦地度過(時間) →[+고통(고난)][+장시간][+인내][+생활]

熬夜: 通夜或深夜不睡覺 →[+장시간][+인내][+자다]

熬頭兒: 經過艱難困苦後, 可能獲得美好生活的希望 →[+고통(고난)][+장시간][+인내][+희망]

煎熬: 比喻折磨 →[+고통(고난)][+장시간][+인내]

苦熬: 忍受著痛苦度日 →[+고통(고난)][+인내][+장시간][+생활]

難熬: 難以忍受(痛苦或艱苦的生活等)→[+고통(고난)][+장시간][+인내][+생활]

위의 의미 자질에 따라, '熬'의 構詞에서 보이는 KC와 DC를 추출해보자.

---

46) 朱彥,「核心成分、別義成分與動作語素義分析——以"收"為例」,『中國語文』, 제4집,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6.07, p.315.

47) 공통분모는 기리우드(P. Guiraud)의 장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신현숙·김영란,『의미와 의미분석』, 푸른사상, 2012, p.148.

<표4> '熬'로 구성된 복합어의 핵심성분(KC)과 구별성분(DC)

'熬'의미항목	構詞	KC	DC
의미항목❶			
의미항목❷	熬煎	[+장시간][+인내]	[+고통(고난)]
	煎熬	[+장시간][+인내]	[+고통(고난)]
의미항목❸	苦熬	[+장시간][+인내]	[+고통(고난)][+생활]
	難熬	[+장시간][+인내]	[+고통(고난)][+생활]
	熬磨	[+장시간][+인내]	[+고통(고난)][+생활]
	熬夜	[+장시간][+인내]	[+자다]
	熬頭兒	[+장시간][+인내]	[+고통(고난)][+희망]

<표4>를 통해 보듯이, '熬'는 기본 의미 중 [+재료: 곡물 등], [+특정상태: 풀, 죽] 등의 자질을 갖는 한국어의 '쑤다'에 대응하는 의미 항목❶의 '조리의'를 통해서는 새로운 어휘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의미 항목❷ 또한 '오랫동안 끓이다'라는 '조리의'를 나타내지만, '熬煎'과 '煎熬'는 이 '오랫동안 끓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다시 의미가 파생되어 고통, 고난, 괴롭힘 등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熬'가 의미 항목❸의 '참고 견디다'라는 확장 의미로 발전할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띠었는데, '苦熬, 難熬, 熬磨, 熬夜, 熬頭兒'가 그 예이다. 이들은 모두 그 핵심성분(KC)이 [+장시간]자질과 [+인내]자질이다.

다음으로, '炒'로 구성된 복합어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자.

炒房: 指倒買倒賣房產 →[+재료:부동산][+매매][+빈번]

炒風: 炒炸的風氣 →[+재료:부동산][+빈번][+매매][+분위기]

炒更: 指業餘時間(多爲晚上)再從事別的工作掙錢 →[+여가시간][+일][+빈번][+이익]

炒股: 指從事買賣股票活動 →[+일][+매매][+빈번][+재료:주식]

炒彙: 指從事買賣外彙活動 →[+일][+매매][+빈번][+재료:외환]

炒貨: 市場上出售的幹炒食品(如瓜子, 蠶豆, 花生等)的總稱 →[+재료:씨앗류][+건조][+빈번][+뒤집기]

炒家: 指專門進行倒買倒賣的人 →[+전문][+매매][+빈번][+사람]

炒米: 幹炒過的或煮熟晾幹後再炒的米 →[+건조][+빈번][+뒤집기][+삶다][+재료:쌀]

炒面: 煮熟後再加油和作料炒過的面條兒 →[+삶다][+기름][+양념][+빈번][+뒤집기][+재료:면]

炒勺: 炒菜用的帶柄的鐵鍋, 形狀像勺子 →[+도구:손잡이가 달린 무쇠솥][+빈번][+뒤집기][+모양:숟가락]

炒手: 指專門從事炒作的人 →[+전문][+투기][+빈번][+사람]

炒作❶: 指頻繁買進賣出, 制造聲勢, 從中牟利→[+빈번][+매매][+분위기][+이익]

炒作❷: 爲擴大人或事物的影響而通過媒體反複做誇大的宣傳 →[+영향력][+매체][+빈번][+선전]

炒肝兒: 食品, 用豬肝, 肥腸加大蒜, 黃醬等作料勾芡燴[48]成 →[+재료:돼지 간, 창자, 양념, 전분, 물][+빈번][+뒤집기]

爆炒: 用熱油快速翻炒 →[+기름][-장시간][+빈번][+뒤집기]

惡炒: 惡意操作[49] →[+악의][+조작][+빈번]

清炒: 把蔬菜等在旺火上迅速的炒熟, 少加或不加輔料 →[+재료:채소 등][+불:센 불][-장시간][+빈번][+뒤집기][±양념]

熱炒: 炒出來趁熱吃的菜肴(對"冷盤"而言)→[+빈번][+뒤집기][+상태:뜨거움][+음식]

小炒: 指集體食堂裏小鍋單炒的菜肴 →[+장소:단체 식당][+도구:작은 솥][+빈번][+뒤집기][+음식]

위의 의미 자질에 따라, '炒'의 構詞에서 보이는 KC와 DC를 추출해보자.

<표5> '炒'로 구성된 복합어의 핵심성분(KC)과 구별성분(DC)

'炒'의미항목	構詞	KC	DC
의미항목❶	爆炒[50]	[+빈번]	[+뒤집기][+기름][-장시간]
	清炒	[+빈번]	[+뒤집기][+재료: 채소 등][+불: 센 불][-장시간][±양념]
	炒貨	[+빈번]	[+뒤집기][+재료: 씨앗류 식품][+건조]
	炒米	[+빈번]	[+뒤집기][+재료: 쌀][+건조][+삶다]
	炒面	[+빈번]	[+뒤집기][+재료: 면][+삶다][+기름][+양념]
	炒勺	[+빈번]	[+뒤집기][+도구: 손잡이가 달린 무쇠솥][+모양: 숟가락]
	熱炒	[+빈번]	[+뒤집기][+상태: 뜨거움][+음식]
	小炒	[+빈번]	[+뒤집기][+장소: 단체 식당][+도구: 작은 솥][+음식]
	炒更	[+빈번]	[+여가시간][+일][+이익]
	炒肝兒	[+빈번]	[+뒤집기][+재료: 돼지 간, 창자, 양념, 전분, 물]
의미항목❷	炒風	[+빈번]	[+매매][+재료(대상): 부동산][+분위기]
	炒房	[+빈번]	[+매매][+재료(대상): 부동산]
	炒家	[+빈번]	[+매매][+전문][+사람]
	炒手	[+빈번]	[+투기][+전문][+사람]

48) 『現代漢語詞典』에서의 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烹調方法, 炒菜後加少量的水和芡粉."이다. 즉, 볶은 후에 소량의 물과 전분을 넣는 조리법이다.

49) 『現代漢語詞典』에서의 操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按照一定的程序和技術要求進行活動或工作"로, 일정한 절차와 기술적 요구에 맞추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炒作①	[+빈번]	[+매매][+분위기][+이익]
	惡炒	[+빈번]	[+악의][+조작]
	炒股	[+빈번]	[+매매][+일][+재료(대상): 주식]
	炒彙	[+빈번]	[+매매][+일][+재료(대상): 외환]
의미항목❸	炒作②	[+빈번]	[+영향력][+매체][+선전]
의미항목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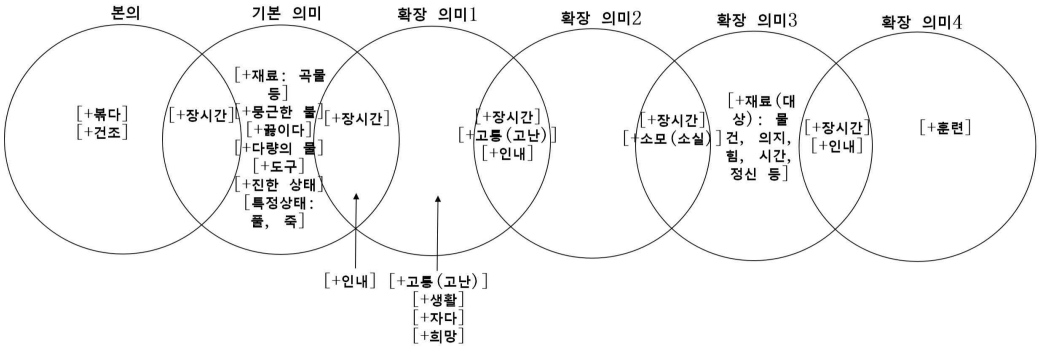
<표5>에서 보듯이, 의미 항목에 직접적으로 [+빈번]자질이 직접 기술되기도 하고 [+볶다]자질에 의해 내포의미자질로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炒’로 구성된 복합어를 통해, 기본 의미인 의미 항목❶로 구성된 복합어는 爆炒, 清炒, 炒貨, 炒米, 炒面, 炒勺, 熱炒, 小炒, 炒肝兒, 炒更으로 복합어에서도 ‘炒’의 ‘볶다’라는 조리법으로써의 기본 의미로 구성된 어휘가 높은 생산성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조리의’인 의미 항목❶로 구성된 복합어는 [+볶다]를 구성하는 자질 중 하나인 [+뒤집기]자질을 통해 어휘를 생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와 관련된 복합어들이 뒤집는 동작을 강조하는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의’인 의미 항목❷로 구성된 복합어는 [+빈번]의 내포의미자질로 볼 수 있는 [+조작]자질이 한층 발전하여 [+매매]자질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고 있었다.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炒’의 복합어의 핵심성분(KC)은 [+빈번]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미연쇄 구조 및 핵심 의미 자질

‘熬’와 ‘炒’의 본의와 기본 의미 그리고 확장 의미의 의미 연쇄 과정과 構詞를 통한 복합어에서의 자질 분석을 통해 ‘熬’와 ‘炒’의 각 의미 단계의 발전 양상에서 보이는 의미 자질을 도식화해볼 수 있다. 각 의미 단계에서의 의미 자질은 의미 성분 중에는 설명에 꼭 필요한 성분 위주로 기술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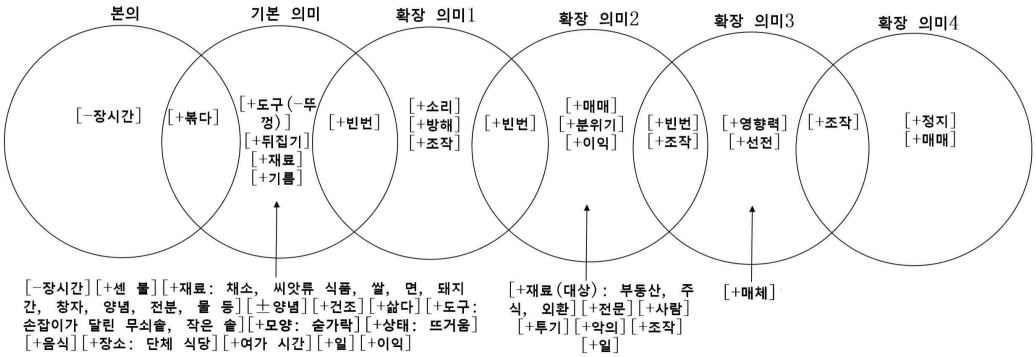
50) ‘炒’는 ‘熬’에 비해 조리 시간이 훨씬 짧고 센 불로 빠르게 음식을 완성할 수 있기에 재빠르게 볶아낸다는 의미의 ‘爆炒’의 어휘를 만들어냈지만, ‘爆熬’라는 어휘는 없다. 이는 ‘熬’의 자질인 [+장시간] 자질과 그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휘 생성에 제약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2> '熬'의 의미연쇄 구조



<그림2>에서 보듯이, 핵심 의미 자질 [+장시간]은 '熬'의 본의에서부터 확장 의미까지 각 의미 단계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자질이다. 확장 의미에서는 각 발전 단계에서 [+고통(고난)], [+소모(소실)], [+인내]자질이 드러나면서, 그 의미적 범위가 구체적인 물건에서부터 추상적인 의지, 힘, 시간, 정신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炒'의 의미연쇄 구조



<그림3>에서 보듯이, 핵심 의미 자질 [+빈번]은 '炒'의 기본 의미에서부터 확장 의미까지 드러나는데, 사실 본의에서의 [+볶다]자질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본의에서부터 [+빈번]자질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확장 의미4에서 '해고하다'의미 자체에는 [+빈번]자질을 찾기가 어렵지만, 보따리 짐을 둘둘 말아서 일터를 떠나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외지인들의 반복된 일상생활의 모습에는 [+빈번]자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熬'와 '炒'가 복합어를 구성할 때 자의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각 의미 단계에서 보이는 의미 속성과 관련된 자질들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의미적 범주가 확대되었지만, 전반적인 의미 범주가 핵심 의미 자질이 축이 되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熬'와 '炒'의 의미연쇄 구조를 통해 의미발전의 각 단계에서 공통으로 다수의 자질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앞서 살펴본 <그림1>에서의 a는 핵심 의미 자질이 존재하는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熬'와 '炒'를 예시로 의미발전 과정에서 핵심 의미 자질이 다수의 의미 자질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승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의미 항목과 그에 따른 의미 자질 분석은 주로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였고, 말뭉치에서 결합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복합어에서 보이는 의미 구조를 통한 자질 분석을 통해 핵심 의미 자질 추출과 역할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의어의 개별 의미소가 핵심성분(KC)인 핵심 의미 자질, 이외의 구별성분(DC)인 변별적 자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의미 확장 시에도 핵심 의미 자질을 공통으로 공유하면서 의미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사의 의미 변천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동작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熬'의 핵심 의미 자질은 동작의 시간 속성을 나타내는 [+장시간]자질이었고, '炒'의 핵심 의미 자질은 동작의 횟수 속성을 나타내는 [+빈번]자질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어 동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가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동작 관련 움직임과 이 동작을 제한하는 관련 속성이 핵심 의미 자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동사 '熬'와 '炒'의 앞뒤 성분의 결합 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지적 결합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결합(逻辑偏离)일 때에도 비논리적 관계가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동사의 다의적 용법이 원형적인 용법으로부터 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熬'와 '炒'의 동작의 주체나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거나 음식 또는 식재료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그 대상의 적용 범위가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확대되었고, 비논리적 결합 관계에서도 의미가 성립되었다.

세 번째, 모든 파생 단계에서 핵심 의미 자질은 의미 형성과 발전 방향의 제약조건이 되며, 이와 상관된 범위 안에서 의미 생성 및 변화가 허용된다. 의미발전 과정

에서의 핵심 의미 자질에 대한 이해는 확장 과정에서의 중심이 되는 기준을 찾는 것과 같았다. '熬'와 '炒'의 확장 의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자질이 각각 [+인내]와 [+조작]인데, 이는 '熬'의 핵심 의미 자질인 [+장시간]의 내포의미자질과 '炒'의 핵심 의미 자질인 [+빈번]의 내포의미자질로 핵심 의미 자질의 계승과 동시에 의미 파생시 확장 조건에 의미적 제약조건이 됨을 암시했다.

네 번째, '과역(跨域) 사용의 어휘 일반화'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논리적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는 언어 표현 이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핵심 의미 자질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炒'의 의미 항목 중 '解僱(해고하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어의 의미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의미 내부 구조에는 핵심 의미 자질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 의미 자질에 대한 이해는 어휘교육 면에서 어휘의 발전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다. 어휘 내부의 의미적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다수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의 복잡한 의미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어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현숙·김영란, 『의미와 의미분석』, 푸른사상, 2012.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9.
장사오위 저, 이강재 역, 『고대중국어 어휘의미론(古漢語詞彙綱要)』, 차이나하우스, 2012.
허신 저, 하영삼 역주, 『하영삼 교수의 완역 설문해자 3』, 도서출판3, 2013.
홍사만, 『국어 의미 분석론』, 한국문화사, 2008.
M. Lynne Murphy, 임지룡·윤희수 번역, 『의미관계와 어휘사전』, 박이정, 2008.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編, 『現代漢語頻率詞典』, 北國語言學院出版社, 1986.
楚艶芳, 『漢語飲食詞彙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葛本仪, 『现代汉语词汇学(第3版)』, 商务印书馆, 2014.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第7卷)』, 上海辭書出版社, 2021.
賈廷柱, 『常用古今字通假字典』, 遼寧人民出版社, 1988.
束定芳, 『隱喻學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0.
王雲路·王誠, 『漢語詞彙核心義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논문>
김시현,「漢韓烹飪動詞語意比較研究」, 北京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22.
_____,「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통한 한중 조리동사의 대응관계 – 삶다(煮)류 의미장을 중심으로」,『중국학』, 제79집, 대한중국학회, 2022.
_____,「복합어 構詞의 구조와 의미관계 고찰 – 중국어 가열조리동사를 중심으로」,『중국인문과학』, 제83집, 중국인문학회, 2023.
리치국,「신어조성에서의 핵심의미소탈락에 대하여」,『중국조선어문(中國朝鮮語文)』, 제3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1.
박재연,「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한국어 의미학』, 제77집, 한국어의미학회, 2022.
이영래,「중국어 어휘의 의미 변화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임지룡,「어휘의미론과인지언어학」,『한국어학』, 제21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장광군,「의미부변종과 단어의 의미변화」,『중국조선어문(中國朝鮮語文)』, 제94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8.
채춘옥,「중국어 ‘落’류 동사의 의미지도 연구 – 이동동사 ‘掉’, ‘落’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2.
董秀芳,「語義演變的規律性及語義演變中保留義素的選擇」,『漢語使學報』, 2005年第1期, 浙江大學漢語史研究中心, 2005.
馮凌宇,「核心義素在兼類詞判別中的意義」,『語文研究』, 제1집, 華中科技大學, 2003.
劉厚偉,「論“V上”的核心語義特征——接觸的認知圖式」,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陸宗達·王寧,「古漢語詞義研究——關於古代書面漢語詞義引申的規律」,『辭書研究』, 제2집, 中國辭書學會, 1981.
王東海,「核義素與辭書的義項描寫」,『辭書研究』, 제4집, 上海辭書出版社有限公司, 2006.
王　華·商　怡,「核心語意特徵對動詞“迎”和“接”語意更替現象的限制」,『語文研究』, 第1期, 2016.
楊曉霞,「現代漢語副詞“才”的核心語意特徵芻議」,『現代交際』, 第16期, 2020.
張聯榮,「談詞的核心義」,『語文研究』, 第3期,山西省社會科學院, 1995.
朱　彥,「核心成分、別義成分與動作語素義分析——以“收”為例」,『中國語文』, 제4집,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6.

<기타자료>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漢典(國語辭典): https://www.zdic.net/
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熬, 炒, 多義詞, 義素, 核心語義特征
	영문	*Ao*(熬), *Chao*(炒), Polysemy, Semantic feature, Core-Semantic feature

A Study on Core-Semantic Feature of Chinese Verbs
: Focusing on *Ao*(熬) and *Chao*(炒)

Kim Si-Hyu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re semantic components operating in the procedure of semantic expansion in polysemy. It introduces methods and processes for extracting the core-semantic features of the verbs '*Ao*(熬)' and '*Chao*(炒)' utilizing dictionaries and corpora. The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ir roles and directions. Additionally, through lexical morphology analysis, the study extracts the core components observed in the compounds of '*Ao*(熬)' and '*Chao*(炒)', providing further evidence for their core-semantic features.

Research on the core-semantic features of polysemy is of significant scholarly importance as it helps reveal the foundation and essence of word meanings, elucidating the intrinsic relationships between meanings within word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ore-semantic feature of '*Ao*(熬)'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the action, specifically [+long duration], with the inherent-semantic feature of [+endurance] prominently manifesting in the semantic expansion of '*Ao*(熬)'. On the contrary, the core-semantic feature of '*Chao*(炒)' is linked to the frequency of the action, specifically [+frequent]. [+Frequent] is one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stir-frying], where the inherent-semantic feature of [+manipulation] is prominently emphasized in the extended meaning of '*Chao*(炒)'.

저 자	김시현 / 金始炫 / Kim Si-Hyu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10.	게재확정일	2023.12.19.